



보도시점 2026. 7. 13.(월) 09:00 배포 2026. 7. 13.(월) 08:00

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

- 최근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압력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

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.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(TRQ: Tariff Rate Quota)을 17,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% 대신 5%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번에 1만 톤을 추가한 것이다.

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은 총 27,450톤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.

※ 정부는 8월 초까지 「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」에 대해 입법예고(~7.31)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

<시장접근물량 증량 내용>

	시장접근물량	적용 시기	비고
당초	17,450톤	2026년 1월~12월	6월말 물량소진
추가	10,000톤	2026년 8월~12월	하반기 수요 고려 증량

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산업관세과	책임자	과 장	하광식 (044-215-4430)
		담당자	사무관	류선희 (sunylue@korea.kr)
	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	책임자	과 장	김민호 (044-201-2911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영 (popbank1@korea.kr)

가. 개정 이유

-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 및 가격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(TRQ)*을 확대하려는 것임

* 시장접근물량(TRQ: Tariff Rate Quota):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,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,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

나. 개정 내용

-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,787톤에서 195,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

※ 규칙 개정령안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「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」 변경을 통해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증량·운영 예정

다. 입법효과

-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로 식품업계 원료 수급 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